

養鷄業界의 當面한 問題 點과 解決 方案



吳 世 正

〈 대한양계협회 회장
전국대학교 축산대 학교수 〉

대한양계협회 78년도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

전반기 사업실적

1. 인사사항

임 용 : 검정소 (4 명)
사 임 : (2 명)
검정소 평집국 (1 명)
현재원 : 18명

2. 행정사항

가. 회원확장

일반회원 1213명
특별회원 14명
단체회원 3명
현재회원 1230명

나. 제 1 차 자체감사실시

77. 6. 15 자체감사수검

다. 각종행사참석

- ① 1% - 1% 한국사료협회주최 세미나 참석
- ② 1% 양평양계단지 현판식 참석
- ③ 1% 한국동물약품협회 정기총회 참석
- ④ 1% 농수산부주최 각식산국장회의 참석
- ⑤ 1% 축련주최 축산진흥대책회의 참석
- ⑥ 1% 안성군 공도계우회 창립총회 참석
- ⑦ 1% 농협주최 사료가격 안정기금 협의회 참석
- ⑧ 1% 축산단체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 ⑨ 1% 축산진흥회 개청식 참석

- ⑩ 1/4 한국동물약품협회 경영강습회 참석
- ⑪ 1% 농수산부주최 사회단체 자율정화 회의 참석
- ⑫ 1% 한국축산학회주최 학술발표회 참석
- ⑬ 1% 한국동물약품협회 창립 7 주년 기념식 참석
- ⑭ 1/1 농수산부주최 사회단체 자율정화 단합대회 참석
- ⑮ 1/20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주최 세미나 참석
- ⑯ 1% 경북도주최 축산인 강습회 참석
- ⑰ 1/2 서정쇄신에관한 가족교양강좌 참석
- ⑱ 1% 서울, 경기양계조합 설립준비회 참석
- ⑲ 1% 오진양행주최 부화및사료에 관한 세미나 참석
- ⑳ 1/16 농수산부 서정쇄신 평가회 참석
- ㉑ 1/4 한국동물약품협회 임원및자문 간담회 참석

3. 대정부 건의 및 질의

- 가. 소득표준을 정상화 건의
- 나. 외국종계 도입에 관한 건의
- 다. 외국종계도입 통관에 따른 검사생략 건의.
- 라. 허가부화장의 축산업 해당여부 질의.
- 마. 신규사업장에 대한 법해석 질의.

4. 회의 개최

- | | |
|---------------------------|------|
| 가. 부화분파위원회 | 3회 |
| 나. 채란분파위원회 | 4회 |
| 난가 대책 소위원회 | 3회 |
| 다. 육계분파위원회 | 3회 |
| 라. 감별분파위원회 | 2회 |
| 마. 검정위원회 | 3회 |
| 바. 편집위원회 | 5회 |
| 사. 부화, 채란, 육계분파위원회 합동 회의. | 1회 |
| 아. 추백리 방역에 관한 간담회 | 1회 |
| 자. 중부지역회원회의 | 1회 |
| 차. 전국육계생산자 지역대표자 회의 | 1회 |
| 카. 닭고기요리 책자 발간 협의회 | 1회 |
| 타. 경기총회(경북, 제주) | 各 1회 |

5. 양계강습회 및 연수회 개최

- 양계강습회 4회(서울, 경기, 전북, 제주)
기술연수회 3회(부화기술 서울, 경남)

6. 검정사업

- 제12—1회 산란계 4,000수 검정중
제12—2회 산란계 1,000수 검정중
제13회 3,200수 검정중
제10—1회 육용계 3,600수 검정완료
제10—2회 육용계 4,000수 검정중

부지정지작업완료(1,000평)

성계사케이지보수완료

양수 및 물탱크 시설완료

전기 시설 보수완료

검정사업확장으로 인원보강(2명)

7. 간행물 발간사업

- 월간양계(6월호까지) 36,000部 발행
주간공문(속보) 40,000부 발행
양계경영일지 14,000부 발행
원색닭 질병전서 1,200부 발행

8. 조사사업

- 조생추출하량조사 5회 실시
양계산물 시세조사 일일 실시
무허가 부화장 실태조사 전국 1회

9. 통계등록사업

- P.L. G.P.S 및 P.S등록사무계속실시
농계원색사진도감 진행 작업중

10. 자체정화사업

- | | |
|--------------------|-------|
| 새마음운동 전개(홍보활동 20회) | |
| 서정쇄신교양강좌 참석 | 1회 |
| 단합대회 및 평가회 참석 | 3회 |
| 정신교육 | 23회 |
| 물자절약운동정책 | |
| 자체정화기구설치 | 전국망설치 |

11. 시험연구사업

방역에 관한 연구사업 추진중

향후사업계획(하반기)

- 가. 하계순회 양계강습회 개최
나. 부화경영자 및 기술자 연수회 개최
다. 제2회 양계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라. 양계기술 연수회 개최
마. 닭고기 요리책자 발간
바. S.P.F종란에 의한 생독백신생산추진
사. 질병검색센타 설치
아. 검정소 이동 증설
자. 양계기술 정설 발간
차. 양계인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카. 양계협회 회원명감 발간
타. 시험 연구사업 실시
파. 해외파견 감별사 자격시험 및 경진대회 개최

當面한 問題點과 解決方案

75년 후반기부터 양계업계는 부로일 러 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그간의 불황을 털어버리고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소득 증대로 육류소비가 급격히 증가 한데 비하여 쇠고기 돼지고기의 절대량이 부족 하였고 더욱기 미국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200해리 전관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국민의 주된 동물성 단백질급원인 북양 동태를 비롯한 생선류의 가격도 폭등하여 대체육류로 닭고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생산 기반도 그간 종제도입의 중지등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충분한 종계가 부족하여 닭고기가 때로는 품귀현상에 까지 가지 않나 우려하게 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간의 호황도 어느덧 끝

나고 금년 봄에는 3개월이상이나 육계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등 다시 양계업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1. 규모의 확장보다 생산비를 절감하여 알찬 경영을 하자.

최근 2~3년간의 호황은 양계업을 무리하게 수와 양적으로만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외 버스를 타고 교외에 나가면 어디를 가나 부로일려를 기르는 비닐하우스를 흔히 보게된다. 이러한 급격한 양적인 확장은 금년 봄의 유래없는 장기간의 불황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제 과거와 같이 병아리와 사료의 외상공급이라는 구실밑에 무모한 규모 확장을 중지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떠한 불황도 이겨내는 슬기를 배워야 하겠다.

현재 외국의 예를 보면 부로일려의 경우 8주에 2~2.1kg의 증체와, 사료효율은 1.8~2에 이르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6주에 체중이 1.8kg, 사료효율은 1.65~1.7정도가 예상되어 산란계도 현재의 산란갯수 235개를 250정도로, 계란 1다스 생산에 현재는 1.8kg사료가 소요되나 이를 1.6kg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배워 하루속히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양계산물을 값싸게 소비자에 공급하도록 하여 타육류와의 경합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2. 시설개선과 위생관리 철저.

최근 양계산업의 기계화는 양계산업을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그 개념을 바꾸게 하고 있다. 닭이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시대의 양계산업을 위하여도 기계화 시대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심한 경쟁 속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길만이 성공할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화에 대하여는 SERA씨가 상세

히 설명 하겠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문제로 양계 규모가 대규모화 됨에따라 양계의 성폐는 곧 방역과 직결된다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추백리, 마이코프라스마균증을 비롯해서 년중 찾아오는 뉴캣슬 지금까지 별로 문제되지 않던 새로운 전염병들,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산란감소증후군등, 질병 문제는 이대로 양계를 계속할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각종 미생물감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부로일려 후기사료 및 산란계사료에는 약품이 첨가되지 않게 하고 있어 쿡시더움 류코사이토준을 비롯한 질병의 만연이 우려되며 지금까지 사료효율의 개선, 등 생산성 향상에 이들 약품에 의존했던 비중이 커짐에 반해 앞으로 일반 양축가의 피해가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

3. 종계 수급의 안정.

양계에 있어 품종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겠다.

앞으로 능력이 우수한 종계를 안심하고 적기에 구입할수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종계의 토착화가 필요하다.

4. 사료의 공급.

필요한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바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사료로 더많은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할수있는 효율사료를 제조할수있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이 사료가격이 뛰여있는 상황에서는 품질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료가격을 싸게 하는것이 양축가를 위하는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이 사료생산 물량이 조정되고 사료가격이 고정된 상

태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항상 양축가이기 때문이다. 이제 배합사료 각사료공장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응단이 필요하다.

5. 유통의 현대화.

양계산업의 생산기술은 급속히 발전한 데 비하여 유통구조는 30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 최근 서울 경기지역의 계란업자가 농협법에 의한 양계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으로 계란의 가정방문판매(우유배달이나 화장품판매 방법)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사업이 성공 확대되어 계란유통의 전기를 이루기를 바란다.

닭고기의 유통은 1976년 도계유통으로 시도 하다 실패하였는데 이것을 거울삼아 하루빨리 유통개선이 이루어져 안심하고 양축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되겠다.

특히 계란 및 닭고기 소비방법도 다양화되고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6. 축산진흥회에의 기대.

금년 4월 1일 새로 발족한 축산진흥회의 사업내용을 보면

- (가) 축산자금지원
- (나) 가축의 증식과 생산기반 조성
- (다) 가축 개량사업의 확충
- (라) 축산물 수급안정
- (마) 사료의 안정적 공급

등으로 대부분 사료 및 쇠고기의 수급에 관한 것이며 생산기반 조성도 대가축 위주로 되어 있으나 가장 값싸게 단시 일 내에 축산물을 생산공급 할 수 있는 것은 양계산업인 점에 비추어 양계산업의 기반조성과 양계산물의 유통개선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히 사료안정기금의 대부분을 양계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여 양계업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여 주기 바란다.

**정
강
리
가
죽
약
품**

기쁜
소식

◎ 평리검사 무료실시

◎ 호흡기병(CRD) 특효약

◎ 빠다리병(포도상구균증) 특효약

호평리에
발매중!

*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농 2동 597-32

(한국육계회연락처) ☎ (주간) 966-8780

(야간) 49-4878

지도에 표기된 주요 장소:
- 동대문 (Tongdaemun)
- 청량리 역 (Cheongnyangri Station)
- 청량리 로타리 (Cheongnyangri Rotunda)
- 미주아파트 (Mi-Ju Apartment)
- 종량교 (Chungnyanggyo)
- 주유소 (Jukyoso)
- 청량리가죽약품 (Cheongnyangri Gachak Yaksup) - 3층